

## 백제와 그 문화재 (百濟와 그 文化財)

洪思俊

一.

문화(文化)의 유통(流通)이란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광명(光明)과도 같아서 어두운 데서 광선(光線)이 있는 곳으로 눈동자가 모이게 되어서 한 문화국(文化國)의 진원(眞元)이 높다보면 그 인접국(隣接國)의 후진국(後進國)들에 모든 문화(文化)가 파급(波及)하게 됨은 고금(古今)을 통(通)한 예(例)라고 하겠다.

고대(古代) 우리나라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하였던 시대(時代)도 중국(中國)의 남북조(南北朝) 수당(隋唐)의 문화(文化)를 받아 들어서 우리의 삼국(三國)이 각각(各各) 특유(特有)의 문화(文化)를 형성(形成)하였었다가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에 들어서자 그 특유성(特有性)이던 문화(文化)들은 한축점으로 모이게 되어 단일화(單一化)된 것을 알겠다.

그러나 고구려(高句麗)의 수도(首都)이었던 평양성(平壤城)에는 아직도 고구려적(高句麗的)인 유풍(遺風)과 유상(遺像)이 저류(低流)하여 있을 것이고 백제(百濟)의 수부(首府)이었던 한성(漢城) 웅진(熊津)(공주(公州)) 사비성(泗沘城)(부여(扶餘))에는 그대로의 백제적(百濟的)인 유물(遺物)이나 유적(遺蹟)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라(新羅) 근천년(近天年)의 왕도(王都)인 서라벌(徐羅伐)(경주(慶州))에도 그 고유(固有)한 전통성(傳統性)의 유산(遺産)(통일전(統一前))이 흐르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런데 오늘에 우리가 목도(目睹)할 수 있는 경주(慶州)의 유물유적(遺物遺蹟)에는 시대(時代)의 구분(區分)은 있을 망정 신라통일(新羅統一)이라는 선(線)을 상하(上下)해서 신라문화(新羅文物)를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북(北)에 고구려(高句麗)가 통강(通講) 평양(平壤)에 남긴 유적유물(遺蹟遺物)들은 중국(中國)에서 받아들여온 흔적(痕迹)을 볼 수 있고 또 고유특색(固有特色)을 지니고 있어서 대륙적(大陸的)인 기풍(氣風)을 풍긴다고 하겠으나 통일신라후(統一新羅後) 신라(新羅)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하겠고 백제역시(百濟亦是) 중국(中國)의 남조(南朝) 수당(隋唐) 문화중심지(文化中心地)에서 흘렀던 문화(文化)가 백제(百濟)대로의 특유(特有)한 유산(遺産)으로 남아서 오늘에 와서도 왕도(王都)이었던 한성(漢城) 웅진(熊津) 사비(私備)에는 백제(百濟)다운 맛을 미미(微微)하나마 찾아 볼 수 있겠으나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색채(色彩)는 찾을 길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경주(慶州)에는 신라근천년(新羅近天年)의 역사(歷史)를 한곳에서 누리고 있기는 하지마는 통일신라전(統一新羅前)과 통일후(統一後)호 시대(時代)를 구분(區分)하여 모든 유산문화(遺産文物)를 관찰(觀察)하여 보는 것이 타당(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두나라들은 당(唐) 라군(羅軍)에 의(依)해서 멸망(滅亡)한 이래(以來) 통일신라

(統一新羅)에서 이렇다할 문화적시책(文化的施策)이 그곳까지 미급(未及)한 것을 알겠고 반면(反面)에 통일신라(統一新羅)에서는 두 점령지역(占領地域)에서 보다 높은 기술(技術)들을 도입(導入)할 가능성(可能性)이 있을 것을 생각할 적에 오늘의 경주(慶州)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통일이후(統一以後)의 건조(乾造)된 유물(遺物)들을 무조건(無條件) 신라인(新羅人)의 독창성(獨創性)을 선양(宣揚)한다는 것보다도 당시삼국(當時三國)의 문명도(文明度)를 감안할 적에 신중(慎重)히 그 유산문화재(遺産文化財)들을 지금까지의 시각을 바꾸어서 예리(銳利)한 분류관찰(分類觀察)을 하여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경주(慶州)에서 학술발굴(學術發掘)한 호간총(壺杆塚)에서는 을묘년국(乙卯年國)도, 도상광개(圖上廣開), 토지호태(土地好太), 왕호간십(王壺杆十)이라는 청동기(靑銅器)가 출토(出土)되었고 또는 석굴암(石窟庵)의 후실입구좌우(後室入口左右)에 서있는 팔각우주(八角右柱)는 고구려(高句麗)의 쌍영총(雙楹塚)에 있는 팔각주(八角柱)와 흡사(恰似)한 점(點) 등을 보아서 신라문화(新羅文化)에서는 고구려계(高句麗系)의 기공(技工)이 섞여 있음을 알겠고 뿐만 아니라 백제계(百濟系)의 기술(技術)도 많이 수입(輸入)되어서 이능화선생저(李能和老师著)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 황룡사(皇龍寺) 구층탑(九層塔)은 말할 것도 없고 경덕왕대(景德王代)에 당(唐) 대종(代宗)에게 보낸바 있는 만불산(萬佛山) 작자(作者)도 백제기공(百濟伎工)의 작품(作品)으로

공술발달(工術發達) 지탈천조(至奪天造) 의공연원(疑共淵源) 출어백제(出於百濟)라는 기록(記錄)을 남겼으며 또한 불국사다보탑(佛國寺多寶塔)에 대(對)한 아사녀(阿詐女) 전설(傳說)<sup>1)</sup>은 심상치 않은 전설(傳說)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신라(新羅)는 인접국(隣接國)에 의(依)한 문화수국(文化受國)이며 뒤늦게 당문화(唐文化)를 흡수(吸收)한게 아니었던가 추측(推測)되는 것이다.

이들 삼국(三國)은 비록 국가(國家)는 정립(鼎立)하였다 하더라도 내륙(內陸)에 속(屬)한 반도내(半島內)에서의 문화(文化)를 상호교류(相互交流)의 현상(現象)이라고 할 것이며 크게는 대륙문화(大陸文化)를 수입소화(輸入消化)한 것에 불과(不過)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백제(百濟) 678년간(年間)의 문화면(文化面)에 있어서 어떠한 발전(發展)을 가져왔던가를 고찰(考察)하기로 한다.

## 二.

백제(百濟)가 BC 18년에 위례성(慰禮城)에 건도(建都)한 시조온조왕(始祖溫祚王)에서 22대(代) 개로왕(蓋鹵王)까지 492년간(年間)에는 국토확장(國土擴張)과 국기확보(國基確保)에 전력(全力)을 기울여서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 온조(溫祚) 33년 조(年條)에

북지패하(北至溟河) 남한웅천(南漢熊川) 서궁대해(西窮大海) 동극주양(東極走壤) 북

1) 佛國寺古今歷代記에는 釋迦塔挾註에 誤傳으로 無影塔이라 하였고 阿詐女도 唐人으로 되었으나 慶州에서는 多寶塔이 無影塔으로 阿詐女는 百濟人으로 傳하고 投身하였다는 無影池 一名 影地邊에 있는 阿詐女の 像이라 傳하는 新羅坐佛이 있다. 常識的으로 多寶塔과 釋迦塔 두塔을 技巧面에서 對照하여 보더라도 多寶塔이 釋迦塔보다 確實히 優秀한 것이며 또한 多寶塔 單層의 構成은 全北 益山의 百濟武王代에 建築한 彌勒塔 下層을 縮小한듯 中央札柱를 中心삼고 十字로 東西와 南北에 通路가 있다. 阿詐女 이튼 亦是 百濟式의 이름에서 阿非知 아직기 阿直岐 阿佑太子 等の 阿佐女일 것이며 唐時代에는 이미 姓과 名이 普遍化한 事實로 보아 唐人의 阿詐女가 아님을 알겠다.

(北)은 패하(敗荷)<sup>2)</sup>(평양(平壤))에 이르고 남(南)은 웅천(熊川)(공주(公州))에 한(限)하며 서(西)로는 대해(大海)와 동(東)은 주양(走壤)(미상(未詳))에 다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대륙(中國大陸)에 사절(使節)을 보내기는 근초고왕(近肖古王) 27년에 비로서 동진(東晉)에 파견(派遣)한 것이 백제본기(百濟本紀)에 보이며 온조왕대(溫祚王代)에는 주(主)로 마한(馬韓)에 사신(使臣)을 보냈고 다루왕대(多婁王代)에 인국신라(隣國新羅)에도 우호관계(友好關係)를 맺기 위(爲)한 교섭(交涉)이 있었다. 국내(國內)로는 국토방위(國土防衛)의 성곽(城郭)을 축성(築成)한 것이 눈에 띄는 것이다. 그러나 第8代 고이왕시대(古爾王時代)에는 어느 정도(程度)의 안정기(安定期)가 된 듯 동왕(同王) 28년(AD 261年)에는 다시 왕복(王服)도 제정(制定)하여

왕복자대수포(王服紫大袖袍) 청금고(靑錦袴) 금화식오라관(金花飾烏羅冠) 소피대(素皮帶) 오위이(烏韋履)

왕(王)이 자색(紫色)의 대수포(大袖袍)와 청금(靑錦)마니 금화(金花)로 장식(裝飾)한 오라관(烏羅冠) 흰가죽띠 검은가죽신을 활용(活用)한 것이 보인다.

근초고왕(近肖古王) 30년(AD 375年)에는 박사고흥(博士高興)으로 역사(歷史)를 기록(記錄)한 것이 있고 침류왕(沈流王) 원년(元年)(AD 384年) 9월에 고승마라난타(高僧摩羅難陀)가 진(晉)에 와서 왕(王)이 궁내(宮內)로 영접(迎接)하고 동왕(同王) 2년에는 불사(佛寺)를 한산(漢山)에 창건(創建)하고 승(僧)18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백제(百濟)가 불교수입(佛敎輸入)이 처음인 것이다.

아화왕(阿華王) 6년(AD 397년이래(年以來) 전지왕(腆支王) 비유왕대(毗有王代)에는 왜국(倭國)과 송(宋)에 견사(遣使)한 것이 자주 사기(史記)에 나오고 있다.

개로왕(蓋鹵王)이 아단성(阿但城)에서 고구려왕(高句麗王) 거련(巨連)에게 살해(殺害)당한 후(後)로 개로왕(蓋鹵王) 태자(太子) 문주왕(文周王)은 웅진(熊津)에 국도(國都)를 옮겨서 이하(以下) 오대(五代) 64년(聖王15年)간(間)은 피란(避亂)의 시대(時代)요 사송(使宋) 사제(使齊) 사랑(使梁)의 외교시기(外交時期)라고 보며 특(特)히 무영왕(武寧王) 때에 인삼(人蔘)을 양(梁)에 수출(輸出)한 것은 특기(特記)할 만하다.<sup>3)</sup> 한편 삼국유사원종흥법조(三國遺事元宗興法條)에는

대통원년정미(大通元年丁未) 위량제창사어(爲梁帝創寺於) 웅천주(熊川州) 명대통사(名大通寺) 양무제(梁武帝) 대통원년정미(大通元年丁未)(百濟聖王 5年) AD527년에 양제(梁帝)를 위(爲)해서 웅천주(熊川州)(公州)에 창사(倉史)하고 대통사(大通寺)라는 사호(社號)를 지었다고 하였는데 공주읍내(公州邑內)에서 지금도 사찰명(寺刹名)을 전(傳)하는 대통(大通)다리(橋)가 있고 사지(寺址)에는 동간지주(幢竿支柱) 한쌍이 서있으며 사역(寺域)은 전부(全部) 읍민(邑民)의 주택(住宅)으로 들어서 있다. 대통사(大通寺)가 읍중(邑中)에 있나하면 산중(山中)에도 수원사(水源寺)라는 웅진시대(熊津時代)의 창건인듯한 그리 크지도 않은 사찰지(寺刹址)가 공주읍(公州邑) 수원(水源)골에 그 형지(形地)만 남고 이렇다할 유물(遺物)이 없으며 년전(年前)에 탑지(塔址)로 추정(推定)되는 유구(遺構)에서 청동탑잔해(靑銅塔殘骸)가 출토(出土)되었다. 이 수원사(水源寺)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미륵선화(彌勒仙花) 미시랑(米尸郎) 진자사(眞慈師)에 나오는 전설지(傳說地)인

2) 新羅本紀 文武王 11年業績에 平壤已南 百濟土地 並乞稱新羅 永爲安逸의 條項을 보아서 敗荷는 平壤으로 본다.  
3) 人蔘史第二卷 人蔘政治篇에 百濟에서 梁에 貢獻條에 名醫別錄 人蔘項에는 陶隱居云……百濟의 것에 形態가 가늘고도 堅白한 것을 重하게 여긴다고 하였고 다시 人蔘史에 百濟武寧王 12年에 梁의 武帝에 人蔘을 貢하였다고 하였다. 名醫別錄 저자는 梁의 陶弘縣

대 수원사(水源寺) 창건연대(創建年代)는 기록(記錄)이 없어서 미상(未詳)하나 신라(新羅)의 흥론사승(興論寺僧) 진자(眞慈)가 흥론사(興論寺) 법당(法堂)에 있는 미륵상(彌勒像) 앞에 발원(發願)하기를 미륵(彌勒)님이 현실화랑(現實花郎)으로 되여지라는 지성(至城)의 기도(祈禱)에서 일선(一線)을 얻어서 꿈에 네가 웅천(熊川)(公州) 수원사(水源寺)에 가보면 미륵선화(彌勒仙花)를 얻어보리라는 데서 그 절을 찾기 위(爲)한 10일정(日程)을 일보일례(一步一禮)하여가며 미륵선화(彌勒仙花)를 갈구(渴求)했던 수원사(水源寺)로 진자(眞慈)가 방문(訪問)한 시대(時代)는 사비성시대(泗泌城時代)로 백제위덕왕(百濟威德王) 23~2년간(年間)이고 신라(新羅)로는 지진왕(智眞王) 1~3年(AD576年에서 178년간(年間))의 사연(事緣)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관계기사(關係記事)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당시(當時)의 광경이 눈에 보이는 듯하며 진자(眞慈)가 일보일례(一步一禮)의 정성으로 공주(公州) 수원사(水源寺)에 오던 당시(當時)는 백제(百濟)는 미륵불(彌勒佛)을 소상(塑像)으로 사찰(寺刹)에 봉안(奉安)하고 신앙(信仰)의 주대상(主對像)의 불상(佛像)인것을 짐작하게 하며 신라(新羅)에서는 아직 미륵불상(彌勒佛像)에 대(對)한 초기(初期)의 신앙시대(信仰時代)로 알겠다.

眞智王代, 有興輪寺僧眞慈(一作貞慈也)海就堂 主彌勒像前 發原誓言 願我大聖化作花郎  
진지왕대, 유흥윤사증진자(일작정자야)해취당 주미륵상전 발원서언 원아대성화작화랑

出現於世 我常親近醉容 奉以國園施 其誠怨至禱之情 日益彌篤 一夕夢有僧謂曰  
출현어세 아상친근취용 봉이국원시 기성원지도지정 일익미독 일석몽유승위왈

汝往熊川(今公州)水源寺 得見彌勒仙花也 慈覺而驚喜 尋其寺 行十日程一步一禮  
여왕웅천(금공주)수원사 득견미륵선화야 자각이경희 십기사 행십일정일보일례

及到其寺 門外有一郎 濃纖不來 盼掬 而迎 引入小門 激致賓軒慈且揖且緝曰  
급도기사 문의유일랑 농섬블래 반칭 이영 인입소문 격치빈헌자차읍차집왈

郎君素昧平昔 何見得殷勤如洲  
랑군소미평석 하견대은근여주

郎曰 我赤京師人也 見師高踏遠來 勞來之爾俄而出門 不知所石 慈謂偶爾  
즉왈 아역경사인야 견사고답원래 노래지미아이출문 불지소우 자위우미

不甚異之 但與寺僧 敘囊昔之夢與來之之意, 且曰誓萬下榻欲待彌勒仙花何如  
불심이지 단홍사 승서낭석지몽여래지지의 단왈서우하탑욕대미륵선화하여

寺僧歎其情蕩然 而見其勲格 乃曰 此去南麟有天山 自古賢哲萬止 多有冥感  
사승흠기정탕연 이견기근격 내왈 차거남린유천산 자고현철우지 다유명감

盍歸彼居 慈從之 至於山下 山靈變老人出於曰 到溪爲 答曰 願見彌勒仙花爾  
합귀피거 자정지 지어산하 산령변노인출영왈 도계위답왈 원견미륵선화미

老人曰 向於水源寺之門外 已見彌勒仙花 更來何求 慈聞即驚汗 驟還本寺  
노인왈 향어수원사지문의 기견미륵선화 경래하구자문즉 경한 취환본사

(원문(原文)에 천산(天山)은 현금(現今) 공주남(公州南)에 있는 주미산(舟尾山)으로 주미(舟尾)는 천(天)의 고어(古語) 즈므에서 주미산(舟尾山)이 됨)

백제(百濟) 第26代 성왕(聖王) 16年(AD583年)에 다시 第3의 왕도(王都)로 정(定)한 사비성시대(泗水城時代)는 바야흐로 성왕(聖王), 위덕혜(威德惠), 법(法), 무(武) 의자(義慈) 등(等) 6대(代) 123年이라는 연대(年代)로 보아서는 짧은 역사(歷史)요 문화면(文化面)에서는 백제국(百濟國)이 건이래(建以來) 가장 문운(文運)이 융흥(隆興)하던 지역(地域)이며 시기(時期)였다고 볼 것이다.

국도(國都)에서 백리북(百里北)에는 차령산(車嶺山)이 막고 있어서 천연(天然)의 참호가 되었고 동(東)은 덕유산일지(德裕山一枝)가 북향(北向)여 달린 계룡산(鷄龍山)고악(固握)이 70리(里) 상거(相距)에 있다. 북(北)에 고구려(高句麗)의 강압(強壓)을 면(免)할 수 있고 동(東)에 신라(新羅)의 침입로(侵入路)를 고수(固守)할 수 있는 사비성(泗水城) 위치(位置)이다. 국도가 비록 북(北)을 상실(傷失)하였다 하더라도 남(南)에 지금 전라도(全羅道)평야지대(平野地帶)를 확보(確保)하게 되어 경제적(經濟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수도(首都)로써 알맞는 왕도위치(王都位置)라 하겠다. 중국(中國) 문헌(文獻) 한원(翰苑)의 백제전(百濟傳)을 본다면 그 판도(版圖)를

북□안성 남린거해(北□安城 南隣巨海)

북(北)쪽은 안성(安城)에 남(南)은 거해(巨海)에 접(接)하였다고 하니 지금의 경기도(京畿道)안성(安城)이 백제국토(百濟國土)의 북한(北限)이 되었고 전라도남해안(全羅道南海岸)이 남한선(南限線)이었던 것을 알겠다. 동(東)은 추측(推測)하건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境界)로 신라(新羅)와 분계(分界)하고 서(西)는 황해(黃海)를 임(臨)한것으로 보아진다. 백제(百濟)가 사비성(泗水城)에 정도(定都)한 이유(理由)는 아무런 기록(記錄)이 없지만 당시백제(當時百濟)로 보아서 왕도(王都)가 판토내(版土內)에서 가장 안전지대(安全地帶)가 되어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와의 공침(攻侵)에 방비(防備)하는 데에 요지(要地)를 택(擇)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국대륙문화(中國大陸文化)를 흡수(吸收)하는데 가장 근거리(近距離)를 비(備)한 것 또는 국토(國土)가 가장 아름다움고도 옥토지역(沃土地域)을 가져보라는데서 사비성(泗水城)을 왕도(王都)로 정(定)한 것이라고 추정(推定)되는 것이다. 과연(果然) 부여(扶餘)에 천도(遷都)한 후(後)로는 중국(中國)에 입양(入梁) 입진(入陣) 입기(入奇) 입수(入隋) 입당(入唐)의 사절파견(使節派遣)이 빈번(頻繁)한 것을 삼국사기백제본기(三國史記百濟本紀)에서 볼 수 있고, 입양(入梁)해서 표청모시박사(表請毛詩博士) 날반등경의(捏槃等經義) 정공장(井工匠) 화사등설지(畫師等說之)

모시박사(毛詩博士)와 날반등(捏槃等)(불서(佛書))경의(經義)와 공장(工匠)와 화사(畫師)를 청(請)해온 것이 성왕(聖王)19년에 있었고 무왕대(武王代)에는 동왕(同王) 23年 10월에 과하마(果下馬)를 동왕(同王)27년에는 명광개(明光鎧)를, 동왕(同王) 38年 12월에 개갑조부(鎧甲雕斧)를 보내자 당태종(唐太宗)이 금사(錦祀)와 채백(彩帛) 30판(坂)을 사례(謝禮)한 것과 41年 2월에는 백제왕실자제(百濟王室子弟)들을 당(唐)에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하도록 한것은 국가재정(國家財政)이 어느 정도(程度)확립(確立)하였던것을 추측(推測)하게 된다. 백제(百濟)의 말대(末代)의자왕(義慈王)5年(AD645年) 당정관

(唐貞觀) 19年)에는 당태종(唐太宗)이 백제국(百濟國)에서 生産하는 황칠(黃漆)을 요구(要求)한 것이 원부원귀(元府元龜)에 보이고 당서동이전백제조(唐書東夷傳百濟條)에서는 그 황칠(黃漆)을 채취(採取)하던 지역급(地域及) 채취시기(採取時期)까지 적어있다. 그 원문(原文)을 적어보면 원부원귀(元府元龜)에는

太宗遣使於百濟國中採取金漆用塗鐵甲皆黃紫引  
태종견사어백제국중채취금칠용도철갑개황사인

曜色邁兼金又以五綵染玄金製爲山文甲  
인색민겸금우이오채영현금제위산문갑

당태종(唐太宗)이 백제국(百濟國)에 사람을 보내어 금칠(金漆)을 취(取)하고서 철갑(鐵甲)에 칠하니 황색자색(黃色紫色)으로 금빛이 나고 오채(五彩)로 현금(現今)을 염색(染色)하여 산문갑(山門甲)옷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당서동이전백제조(唐書東夷傳百濟條)에서는

有三島生黃漆六月刺取翻色若金  
유삼도생황칠유월자취번색약금

세섬에서 황칠(黃漆)을 생산(生産)하는데 6월에 자(刺)하여 즙(汁)을 취(取)하며 섯택(色澤)이 금(金)같다고 하였다. 이 황칠(黃漆)은 백제국(百濟國)의 특산(特産)인 것을 알겠고 가구장식용(家具裝飾用)의 칠(漆)인 것을 알겠다. 그러나 필자(筆者)가 원산지(原産地)인 삼도(三島)를 조사(調査)한바 전남도관하(全南道管下) 완도(莞島) 보길도(甫吉島) 호화도(芦花島) 등(等) 도서지방(島嶼地方)에 지금도 생산(生産)하는데 나주선(羅州扇)에 황색(黃色)을 내는 그 물감이 바로 황칠(黃漆)을 사용(使用)한다는 것을 중앙일보(中央日報) 이종석(李宗碩) 기자(記者)에게서 현재(現在) 황칠사용처(黃漆使用處)를 들은 바가 있는 데 이 황칠목(黃漆木)들이 지금 남벌(濫伐)한 탓에 점점 수주(樹株)가 없어져 간다는 소식이 있어 당국(當局)의 보호(保護)가 필요(必要)할뿐 아니라 황칠목소재지역(黃漆木所在地域)을 지정(指定)하여 지역적(地域的) 보존대책(保存對策)이 있어 마땅하다고 사료(史料)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삼국사기(三國史記) 유사(遺史) 등(等) 고사(古史)에서 약간(若干) 남은 백제(百濟)의 문화사적(文化史的) 기록(記錄)을 채취(採取)한 것에 불과(不過)한것이며 이 백제본기권(百濟本記卷) 1~6이 백제(百濟) 978년의 역사기록(歷史記錄)으로는 너무나 소략(疏略)한 허전한 감(感)이 없지 않다.

다음은 8.15 해방이후(解放以後) 백제판도(百濟版圖)에서 신발견(新發見)된 문화(文化)자료(資料)들을 몇 개 들어 보고자 한다. 서기(西紀) 1948년에 부여읍관북리(扶餘邑官北里)에서 우연(偶然)히 노변(路邊)에서 집적(集積)하여 둔 백제시대석재중(百濟時代石材中)에서 사택지적(砂宅智積)의 당탑비(堂塔碑)가 발견(發見)되어 역사학보(歷史學報) 第6집(輯)에 타고(托稿)로 발표(發表)한 것이 있다. 이 비문(碑文)은 수당시대(隋唐時代)의 4, 6병려체(駢麗體)로 문장(文章)이 유려(流麗)할뿐 아니라 가위(可謂) 미문(美文) 령구(令句)로 당시(當時) 백제(百濟)의 상류사회(上流社會)에서 이미 한문(漢文)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동시(同時)에 불찰(佛刹)에 왕(王)과 귀족사회(貴族社會)가 불교(佛敎)를 숭앙(崇仰)한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자(漢字)로 문장구성(文章構成)은 물론(勿論) 비측(碑側)에는 원내(圓內)에 봉황문(鳳凰文)을 음각(陰刻)한 특유(特

有)의 백제비(百濟碑)인 것을 알게 된다. 발표문중(發表文中)에는 백제(百濟)사신(使臣)으로써 왜국(倭國)에 파견(派遣)되어 일본령명천황(日本領明天皇)에게 융성(隆盛)한 우대(優待)를 받은 것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적혀있는 것이다.

다음은 충남(忠南) 서산군(瑞山郡) 운산면(雲山面) 취현리(就賢里) 소재(所在) 서산(瑞山) 마에삼존불(磨崖三尊佛)(歷史學報 17. 18號 黃壽永 東大教授發表)은 주존불(主尊佛)의 협시(協侍)로써 불상(佛像) 좌측협병(左側協併)에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이 있는데 이 역시(亦是) 백제불상(百濟佛像)을 연구(研究)하는데에 다대(多大)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불교(佛敎)가 공주(公州)부여(扶餘)백제왕도(百濟王都)에 거래(去來)한 통로(通路)를 가르쳐주는 막중(莫重)한 학술자료(學術資料)임을 사계(斯界)에 던졌다고 보며 다시 진안(秦安)의 삼존불(三尊佛)(진단학보 第20號 동대교수(東大教授) 황수영씨(黃壽永氏) 발표(發表))도 매우 오래된 불상 조각(佛像彫刻)으로 서산삼존불(瑞山三尊佛)보다도 年代(年代)가 올라가는 귀중(貴重)한 불교문화자료(佛敎文化資料)이다. 서산(瑞山)에 여사(如斯)한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가 속출한다는 것은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중국(中國)과 백제(百濟)가 문화교류(文化交流)의 빈도(頻度)를 거듭하였다는 증거(證據)일 것이며 그래서 후당서(後唐書)에 사비성(泗泌城)에 와본 중국인(中國人)들이 『다사탑승니 무도사(多寺塔僧尼無道士)』의 기록(記錄)이 있었을 듯한 것이나 오늘에 부여지방(扶餘地方)에는 당라군(唐羅軍)의 말굽에 짓밟힌 이후(以後) 그 잔영(殘影)이라는게 미미(微微)하여 겨우 백제시대(百濟時代) 5층탑(層塔)이 고고(孤孤)히 부여(扶餘)가 백제왕도(百濟王都)이었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근자(近者)에 다시 부여읍(扶餘邑) 정동리(井洞里) 가능골에서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전축분(塼築墳)에서 사용(使用)하였던 전(塼)과 동일(同一)한 『중방(中方)』, 『대방(大方)』의 음각명(陰刻銘)이 있고 두 전(塼)으로 합(合)해서 측면(側面)에 팔엽단판연화문(八葉單瓣蓮花紋)의 되는 전(塼)과 기하문(幾何紋)이 있는 전(塼) 등(等)이 다수(多數)히 경작자(耕作者)가 산록개간(山麓開墾)에서 로출(露出)되어 8月말 9月初에 개인(個人)의 손에 입수(入手)된 것을 부여박물관(扶餘博物館)에 수습(收拾)함과 동시(同時)에 현장(現場)에서 역시(亦是) 연화문전(蓮花紋塼)과 명문전등수매(銘文塼等數枚)를 부여박물관(扶餘博物館)에서 가져다 놓은 것은 학계(學界)에 다행(多幸)한 일이고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전축분(塼築墳)이 공주시대(公州時代)에 축조(築造)하였다는 재래(在來)의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라고 본다.

이상은 삼국시대(三國時代) 반도지역(半島地域)에서 수포(水泡)처럼 홀기(忽起) 홀멸(忽滅)에서도 백제(百濟)가 얼마나 문화면(文化面)에 있어서 우수성(優秀性)이 있음을 국내(國內)에서 찾으려 남겨져 있는 것을 별견(瞥見)한 것이다. 눈을 이국(異國)인 일본 고대사(日本古代史)와 현존(現存)하고 있는 그 나라에 보유(保有)하고 있는 백제문화(百濟文化)의 파급도(波及度)를 찾아보기로 한다.

### 三.

백제제팔대(百濟第八代) 고이왕시대(古爾王時代)는 국내문제(國內問題)가 어느 정도안정(程度安定)된 모양으로 관원(官員)의 직제(職制)와 국민(國民)에게 의무(義務)를 부담(負擔)하게 되는 법령(法令)이 제정(制定)되었다는 것이 사승(史乘)에 있거니와 한편 일본국(日本國)과의 문화사절(文化使節)이 파견(派遣)되었고 기술공학자(技術工學者)들도

많이 건너간 것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보인다.

즉 고이왕(古爾王) 14年(AD247年 일본신공황후(日本神功皇后) 47年)에 구저(久氐) 미주류(彌州流) 막고(莫古)가 최초(最初)로 도일(渡日)한 후(後)로 동왕(同王)19년에는 다시 구저(久氐)로 하여금 칠지도일구(七枝刀一口), 여자경일면(女子鏡一面) 등(等) 여러 가지 중보(重寶)를 보냈고 봉의공녀진모진(縫衣工女眞毛津)이 건너가서 일본(日本)에 의복(衣服)을 시작(始作)하였다는 것이다. 동왕(同王)51년에는 학자(學者) 아직기(阿直岐)로 하여금 량마이필(良馬二匹)을 가지고 건너가서는 태자(太子) 토도추랑자(菟道稚郎子)의 사(師)가 되어 역사학(歷史學)의 시조(始祖)가 되었으며 명년(明年)에 왕인(王仁)이 갈 때에는 유학(儒學)의 근본정신(根本精神)을 적은 논어(論語)(何晏集解) 천자문(千字文)(위(魏)의 종(鐘)을 휴대(携帶)하고 건너갔는데 이 왕인(王仁)에 의(依)하여 일본(日本)에 한문(漢文)을 사용(使用)한 것이 최초(最初)인 것이다. 그리고 근초고왕(近肖古王)10年(AD355年=일본(日本) 인덕천황(仁德天皇) 43年)에는 매(鷹)를 일본천황(日本天皇)이 백제인(百濟人) 주군(主君)에게 양훈(養訓)하게 하였다.

개로왕(蓋鹵王) 9年(AD463年 日本雄略天皇 7年)에 백제(百濟)에서 도부(陶部)(土器技術者)와 안부(鞍部)(製靴技術者)와 화부(畫部)(畫師) 금부(禁府) 돌인부(突人夫)(料理人) 등(等)을 일본(日本)에 보냈다고 한다. 또한 무영왕(武寧王) 13年(AD513年 일본(日本) 계체천황(繼體天皇) 7年)에는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보내고 동왕(同王)36년에는 단양이(段楊爾) 대신(代身)에 역시(亦是) 오경박사(五經博士)에 한고안부(漢高安茂)를 보내었다.

사비성(泗泌城)에 처음으로 천도(遷都)한 성왕(聖王) 30年(AD552年 일본(日本) 흠명천황(欽明天皇) 13年) 10月에는 동왕(同王)이 석가불금동상일구(釋迦佛金銅像一軀)와 번개(幡蓋) 약간(若干)경론(經論)약간권(若干卷)을 다시 일본(日本)에 보내었다고 하였다. 또 위덕왕원년(威德王元年)(AD554年 일본(日本) 흠명천황(欽明天皇)15年)에는 오경박사(五經博士) 왕유귀(王柳貴)를 대신해서 고덕마정안(固德馬丁安)을 승담혜등구인(僧曇惠等九人)을 승(僧) 도심등칠인(道深等七人)으로 대체(對替)하며 역박사(易博士) 시덕왕도량(施德王道良)과 역박사(曆博士) 고덕왕보손(固德王保孫) 의박사(醫博士) 내졸(奈卒) 왕유전타(王有俊陀) 채약사(採藥師) 시덕번량풍(施德蕃量豐)고덕정유타(固德丁有陀) 락인(樂人) 시덕삼근(施德三斤) 계덕기마차(季德己麻次) 계덕진노(季德進奴) 대덕진타등(大德進陀等) 다수(多數)의 문화인(文化人)들이 일본에 진출(進出)하였으며

동왕(同王)24年(AD 557년 일본(日本) 해달천황(敏達天皇) 6年)에 경론(經論) 약간권(若干卷)과 율사(律師)선사(禪師) 비구니(比丘尼) 금사(金砂) 조불공(造佛工) 조사공(造寺) 6人を 보냈으며

동왕(同王) 31年(AD 584年 일본(日本) 해달천황(敏達天皇) 13年)에는 다시 미륵석승일구(彌勒石僧一軀) 불상일구(佛像一軀)를 보내주었으며

동왕(同王) 35년에는 수신사(修信使)에 딸려 승혜념(僧惠掄) 령근(令斤) 혜연(惠宴) 등(等)으로 하여금 불사리(佛舍利)를 보내고 다시 은졸수신(恩卒首信) 나졸복부미신(那卒福富味身) 등(等)으로 불사리(佛舍利)를 보내는 동시(同時)에 승령조(僧聆照) 율사령위(律師令威) 혜중(惠衆) 혜숙(惠宿) 도엄(道嚴) 령개(令開) 등(等)과 사공(寺工)에 태량미태(太良未太) 문고고자(文賈古子), 노반박사(鑿盤博士)에 장덕백미순(將德白味淳)과 와박사(瓦博士)에 마내부노(麻奈父奴) 양귀문(陽貴文) 룡귀문(陵貴文) 석마제미(昔麻帝彌)와 화공(畫工)에 백가(白加)를 파견(派遣)하여서 일본(日本)의 문운(文運)을 융성(隆



盛)하게 하였다. 당시(當時) 일본국(日本國)의 고위인물(高位人物)인 소아마(蘇我馬) 자숙선(子宿禰)은 백제승(百濟僧)에게 불법(佛法)에 의한 수계법(受戒法)을 물으며 선신니(善神尼) 등(等)을 백제(百濟)사신(使臣)에 은졸(恩卒) 수신(受信)을 딸려 보내어 학문(學問)을 닦게하며 한편 비조지방(飛鳥地方)에 법흥사(法興寺)를 창건(創建)하게 하였다.

무왕(武王) 2年(AD 601年 일본(日本) 추고천황(推古天皇) 9年)에는 백제(百濟)에서 승관록(僧觀勒)으로 일본(日本)에 가서 역본(譯本)과 천문(天文) 지리서(地理書)와 둔갑방술서(遁甲方術書) 등을 박달(博達)하며

동왕 13年에는 로자공(路子工) 1 명지기마려(名芝耆摩呂)에 의(依)하여 수미산형(須彌山形)과 오교(五交)를 설계건축(設計建築)하여 정원술(庭園術)을 과시 하였다.

이상이 백제(百濟)가 한성(漢城)과 웅진성사비성시대(熊津城泗沘城時代)에 이국왜에게 문화(文化)를 전폭적(全幅的)으로 유통(流通)하여 일본고대문화면(日本古代文化面)에 이채(異彩)를 던진 일면(一面)을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적어 본것이다.

#### 四.

우리나라 고대(古代)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한 시대(時代)에 통일신라(統一新羅) 고려(高麗) 조선조(朝鮮朝)에 이르기까지 중국대륙(中國大陸)의 문화(文化)를 받아들여서 각시대(各時代)의 특유(特有)한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하였고 또 이 문물(文物)을 승화(昇華)한 것도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그 문화(文化)를 섭취(攝取)하여 그 나라에 적응(適應)시키고 이것을 소화(消化)하고서 멀리 해외(海外)까니 파급(波及)하게 한 것은 백제국(百濟國)이라고 하겠다.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에서 일본(日本)에 문화교류(文化交流)가 전연(全然)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백제국(百濟國)만큼 문예(文藝) 종교(宗教) 다방면(多方面)에 걸쳐서 소위(所謂) 일본(日本)의 비조문화(飛鳥文化)를 건설(建設)함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그 유례(類例)가 없다고 하겠다. 오늘에 와서도 내랑대판지방(奈郎大阪地方)의 유물유적(遺物遺蹟) 등(等)에 일본(日本)에서 세계(世界)에 선전(宣傳)하고 있는 문화재(文化財)가 어의 백제(百濟) 사비성시대(泗沘城時代)의 소산(所産)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고대사(古代史)에는 백제(百濟)가 이렇다할 해외(海外)에 문화(文化)를 전파(傳播)하였다고 하는 기록(記錄)은 없으며 일본(日本) 스스로가 자국(自國)의 문물(文物)이 백제전래운운(百濟傳來云云)의 기록(記錄)이 있고 유물(遺物)들이 오늘에도 남아 있어서 상호대조연구(相互對照研究)에 막중(莫重)한 효과(效果)를 준다는 것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할 것이며 백제문화(百濟文化)가 정립삼국(鼎立三國)에 가장 우월(優越)하였다는 것을 입증(立證)한다고 하겠다. 한나라의 문화(文化)가 타국(他國)에까지 파급(波及)하였다는 것은 보유(保有)한 문물(文物)이 고도(高度)로 발달(發達)하고 그것이 넘쳐흐른 것이 인국(隣國)에까지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